



扶安林氏金浦宗報

5호
2019년 12월 18일

◎ 발행일 : 2019년 12월 18일 ◎ 발행인 : 임종호 010-4734-8002 ◎ 편집인 : 임종상 010-5343-3441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29-1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신지요?



저는 2019년 12월 31일 그동안의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 종중회장을 2기에 걸쳐 8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성 우체국장을 퇴임하고 2010년에 처음으로 종중회의에 참여하였고, 종사에 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2011년 종중 회장에 선출되어 회장직을 수행 해왔습니다.

종사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회장이 독단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 보다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조율하는 것이 종회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회 임원 분들이 제안해주시고 임원 분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저는 적합한 분을 책임자로 배치하고 약간의 조정과 응원을 하였습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낸 임원 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취임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계파 비율로 안배하여 구성하였고 회의의 분위기와 투명성을 위하여 회의실을 새로 단장하였습니다. 포인트칠을 새로 하고 회의용 테이블과 책상과 가구를 배치하고 태극기와 의사봉을 준비하였습니다. 종중의 모든 의제는 이 사회의 토의를 통해 결정하여 시행하고, 종회에서 감사보고와 예산승인을 받았으며 회의 문화를 개선 했습니다. 가구 일체를 제공하여 주신 임종상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회원의 참여도입니다. 종중의 가장 큰 행사는 서하공 시제와 학사공 시제입니다. 당시의 종중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은 고령층이 주류를 이루었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거의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임종훈님을 초대 청년회장으로 선임하여 성공적인 청년회가 구성되었고 종중 행사와 시제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년회는 임종광님이 회장을 맡아 활성화 되었으며 등산, 행사, 친목활동으로 넓혀졌습니다. 부녀회를 조직하여 행사에 자원 봉사 등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임종훈님, 임종광님과 회원들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종중의 재산이 부안 임씨로 되어있고 일부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 종회로 변경 등기하여 안전성을 확립 하였습니다. 등기이전과 재산관련 세무에 협조해주신 임병호 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임 중 부안 임씨 중앙종친회 회장을 겸하게 되어 중앙회의 행사로 서하공의 묘소 정비사업과 서하문학비 건립을 하였습니다.

서하공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성묘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교육 차원에서 진행한 사업에 많은 성금을 해주시고 행사 때마다 참여 종인들을 위한 사은품을 보내 주신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인 임종철님과 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종인들에게 종중회의에서 추진하고 진행하는 사업을 널리 알리고, 동참 유도과 알 권리를 전달할 매체가 없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종인들에게 소식을 전할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보를 만들어 매년 시제와 총회에서 배포하여 홍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신문을 편집하신 임종상님께 감사드립니다.

종인들의 숙원 사업인 추모공원의 건립으로 종인들이 상을 당하여 어려울 때 저렴한 비용에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추모공원을 개장하였습니다. 추모공원 허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임종광님과 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에서 선영까지 임야에 품종이 좋은 수목으로 변경하여 식수하였습니다.

훌륭한 선조를 찾고 선양하는 일은 우리 종회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순국열사 임용우선생 공로비”를 세우고 묘소를 추모공원에 이장하여 안장해 드렸습니다. 공로비 설립을 추진한 임종훈님과 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자족보 편찬사업을 했습니다. 한글 한문 혼용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찾을 수 있는 전자족보는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찾아볼 수 있어 젊은 종인들의 관심과 활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자족보 편찬위원장이신 임종학님 기획 편집한 임종광 부위원장님, 홍보와 수집을 담당한 임도연 총무님 종손 임성희님과 임원분들께 감사드리고, 홈페이지를 기획 작성한 임종상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임 기간 중 정기적으로 원로 분들과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식사하면서 많은 지도를 받았고, 소외감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소 종파와의 연대 강화와 종중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소 종파를 방문하여 임원회의를 같이하며 친목을 도모 했습니다. 협조해주신 소종회장님들과 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는 본인도 건강 문제로 몇 달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무거운 종중 회장직을 물러나면서 부족했던 부분과 못 이룬 숙원사업들에 대한 죄송함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새로운 회장과 집행부가 더욱 발전시키고 안정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종회 발전을 돕고 응원하겠습니다. 재임 중에 부족했던 부분과 소홀했던 부분은 넓은 마음으로 헤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같이 해온 임원 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종친 여러분! 새로운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내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9년 12월 18일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중회장 임 종 호

그동안 함께한 임원분 들게 감사드립니다

직 책	이 름	전화번호
고문	임중기	011-9892-0405
고문	임중학	010-8387-1477
고문	임종철	010-2588-0563
감사	임문기	010-8519-1773
감사	임종철	010-2327-2974

직 책	이 름	전화번호
회장	임종호	010-4734-8002
부회장	임종근	010-5328-9205
종손(부회장)	임병일	010-5470-0163
총무이사	임도연	010-9553-9369
이사	임종문	010-5270-6839
이사	임종수	010-2388-8840
이사	임한기	010-6237-2978
이사	임충실	010-3396-3394

직 책	이 름	전화번호
이사	임용혁	010-3718-6549
이사	임종상	010-5343-3441
이사	임종훈	010-3792-2132
이사	임종선	010-2287-0945
이사	임찬기	010-9023-5693
이사	임종철	010-5340-4954
이사(청년회장)	임종광	010-7600-8082
이사	임병호	010-2739-7750

〈先組의 일을 찾아서〉

뿌리없는 나무없고 조상없는 후손없다

- 우리가 조상님들께 시제(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



임 종 광 (林鍾光)

부안임씨 밀직공파 30孫
前 김포시청 자치행정국장
現 김포우리병원 기획관리실장
現 부안임씨 밀직공파 청년회장

을 하고 시제가 진행될 고향땅 월곶 개곡리로 향했다. 가을 수확이 끝난 들녘엔 이룸모를 쇠기리개때의 군무가 한창이고 얇은 산에는 온통 단풍이 수를 놓아 절기가 만추의 초입임을 느끼게 했다. 텅빈 들녘과 오색찬연한 단풍을 보며 우리의 자연은 가을로 접어들고 겨울이 되면 허허로운 공간으로 그리고 나뭇잎을 모두 떨어 뜨려 무소유 바움의 과정을 거치고, 이듬해 꽃피는 춘삼월이 되면 새순이 나오고 농부들은 다시 들판에 모내기를 하고 시간이 흐르면 산에는 푸르름으로 뒤덮이고 들녘엔 벼가 자라 들판을 온통 녹색으로 채우는 채움의 과정이 연출된다. 우리의 자연은 '바움'과 '채움'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윤회하며 공존의 원칙을 이어가는 반면 우리의 인간 세상은 비움보다는 오로지 채움을 우선시하며 욕심을 너무 부리는 일상이 아닌가 나면서 생각해 보는 가운데 목적지인 개곡리 독골 선영에 도착했다.

이른시간 林鍾瑚 종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집 큰형님(林鍾文), 鍾學, 鍾根 등 집안에 형님뻘 되시는 어르신들과 炳鎬 대부님, 鍾喆, 鍾勳형님, 鍾商, 鍾洙친구 그리고 시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며 홀기(사회)를 읽고 중중 총무 일을 성실하게 잘 끌어가고 있는 도연(度淵) 조카와 멀리 외지에서 집안네 일가들이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속에 제례복장으로 시제에 임하고 있었다. 나 역시 한켠에서 병호 대부와 서울 종철 형님과 이런저런 종사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이어 도현 총무의 시제 시작 알림과 함께 종회를 끌어가시는 종회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었다.

“오시느라 수고들 했습니다. 뿌리없는 나무없고 조상없는 후손없습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님들께 한 해 농사 지은 곡식으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향기 나는 술을 올리고자 합니다. 조상님 순서대로 절차에 따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장님의 말씀 후에 총무의 홀기로 시제가 시작됐다.

먼저 10代 득성(得成, 中訓大司)조상님께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술잔을 올리고 종손(林成熙)의 초헌례와 종학 큰형님의 축문을 읽으며 한해 무운과 후손의 강녕을 기원했다. 이어 계정(繼楨, 12代, 翰林學士行長)~13代 철손(哲孫)~14代 원년(舜年)~15代 사언(士彦)~16代 조춘(兆春, 百春) 17代경남,응남,두남(慶南,應南,斗南) 順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제사를 지냈다.

문득 우리가 조상님들께 시제(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다. 종회 회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누구든 조상없는 후손은 없을 것이다. 또한 뿌리없는 나무도 없을 것이다. 아마도 후손들이 일년에 한번 사당(司堂, 제사 지내는 곳)에 모여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경건한 마음으로 선대의 음덕을 기리고 후손들이 번성하고 무탈강녕을 기원드리는 일종의 의식이라 하겠다.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을 받은 제례의식은 IT코리아 4차 혁명시대의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소 비현실,비효율로 시대에 반한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온고지신이라고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으로 자손만대에 까지 이어져야할 우리의 유

산 풍속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조선 영조때 이중환(李重煥)이 지은 지리책 택리지에도 지리(地理),생리(生利),인심(人心)산수(山水)의 조건을 두루 갖춘 복된땅으로 안동 하회마을(세계문화유산 등재)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몇해전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하회마을을 방문해 한국다운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높이 평가한바처럼 우리의 고유 전통과 문화는 후세에도 길이 물려줄 유산임에 틀림없음을 알 때 우리가 행하는 시제(제례) 풍속은 분명코 부정적인 면보다는 우리가 지켜가야할 아름다운 풍습으로 받아들이는게 맞다고 봐야 한다.

조상님들께 올리는 제사의 풍속은 각 성씨별 종파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모두 같을 수가 없다. 아니 다르다. 이는 각 성씨 문중별로 고유의 전통이 있고 관례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조상님을 존경하고 추모하는 의미를 담은 우리의 전통이다. 그래서 제사상에는 항상 정성을 담은 귀한 음식을 올린다.

지역별로 제사상에 올리는 제사 음식을 보면 우선 내가 사는 경기도에서는 명태를 말린 북어가 꼭 올라간다. 북어가 앓을라가면 제사를 못지낸다는 풍습이있을 정도다. 명태는 알을 많이 낳아서 다산의 풍요를 상징하고 눈알이 붙어있는 북어를 써야만 잡귀신을 쫓는다는 설도있다. 강원도는 고랭지로 감자,메밀,버섯,산나물이 꼭 제사상에 오른다 한다. 충청도는 계적(鷄炙)으로 통째로 삶은 닭위에 지단을 올리는데 원래는 꿩을 쓰다가 오래전 부터는 닭을 쓴다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꿩대신 닭’이라는 말이 생긴 듯 하다. 또한, 음식하면 전라도 음식을 예기 많이 하는데 전라도에서는 흥어,꼬막등 바다 음식이 오르고, 경상도에서는 문어가 필히 제사에 올라야 한다고 한다. ‘글월文’이라 글을 아는 물고기라 여겨 양반의 고장 안동지방에서는 문어를 양반고기라고도 한다.

제주도에서는 옥돔,굴,전복,팽이가 제사상에 오른다는데 섬지역 특성상 쌀이 귀한 제주에서 떡 대신 보리빵을 제사상에 지금도 빠지지 않고 올린다고 한다.

한편 조상님들이 싫어하는 음식으로는 복숭아,팔,고추가루,마늘등이 있어 귀신을 쫓는다는 설도 있다. ‘치’자가 들어가는생선은 부끄러울 치(恥)로 인식해 갈치등 어류는 제사상에 금지 음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뱀장어,메기등 비늘이 없는 생선도 부정한 생물로 여겨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다 한다.

제사의 순서 또한 지방마다 확연히 다르다. 제사는 먼저 초헌례를 부여받은 종손이 분향(焚香)강신(降神)한 후 제주(祭主) 이하 참석자 모두 두 번 절한다. 다시 종손이 신주마다 술을 올리고 술가락과 젓가락을 손잡이가 신주로부터 오른편에 가도록 해 시접 위에 가느런히 놓는다. 이것을 삼시정제(掃匙正箸)라 했다. 제주 이하 참석자는 ‘조상님 덕분에 새로운 곡식을 수확 했으니 많이 잡수시라는 뜻으로 보복해서 아홉 수저 잡수실동안 기다린다. 이후 집사가 수저를 거두고 제주 이하 참석자 모두 두 번 절하며 조상을 배웅하는 것으로 제사를 마치게 된다. “우리 어릴때는 먹을 것이 귀했지 않는가? 어린 아이 할 것없이 기다리는게 명절날이었지. 양반집 제삿날이나 상치르고 3년상인 대상 때는 10리 안팎에서 다 알고 제사음식을 받아 먹기 위해 긴 줄도 마다하지 않았네. 또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을 나눠 먹는 미풍양속이 있었지. 먹을 것이 흔해 지금 애들은 제사 음식보다 피자나 햄버거를 더 찾으니 제물을 많이 차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제사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며 독골 시제를 집주하신 임종호 회장님께서 자세한 부연의 설명이 있었다.

제사를 올리면 정말 조상님들이 오셔서 음식을 드시는가에 대한 우문에 대해서는 우리눈에는 보이지 않았을뿐, 영(靈)으로 오셔서 맛있게 드신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어야 할 것이라는 현답으로 대신하고 싶다. 조상님은 영혼의 세계에서 늘 후손을 보살피고 또 조상이 없었다면 우리 후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손인 우리는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시제도 지내고 차례상을 올리는 것이다. 나무는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물과 영양분을 줄기로 올려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맺게하는게 자연의 섭리이듯 마찬가지로 조상은 자손의 뿌리이고 자손은 조상에게 열매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독골 시제가 한낱 매년 행하는 의례적인 행사라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크고 이왕지사 조상님의 은덕에 감사하는 후손의 마음이라면 정성과 예를 다해 음식과 향기나는 술을 올리며 후손의 평안과 건강을 비는게 우리의 도리이며 자연의 순리와 같을 것이다.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순국열사 임용우 선생 묘역 이장식 거행

－ 독립운동가 임 용 우 (林容雨) 열사님을 추도합니다 －

금년은 3·1운동 발발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일어난 3·1운동은 한국의 독립을 대대적으로 선언한 사건이었으며, 3·1운동의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외교 활동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3·1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자,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전승국의 식민지에서 최초로 일어난 대규모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독립운동이 있어 오늘날 우리는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안식과 행복의 반석위에서 잘살아 가고 있습니다.

임용우(林容雨)!! 부안임씨가 자랑스러워 하는 조상님 이십니다. 조상님을 열사라 부릅니다. 후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가 오늘을 사는 부안임씨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임용우 열사님의 묘를 선영인 독골언덕에 후손들이 정성껏 안장해 산뜻하데 단장된 공원에서 영혼이 편안하게 안식토록 했습니다.

부디 편하게 영면 하소서!!

부안임씨 林 容 雨 열사 묘 이장식 추도사

오늘, 우리는 독립운동가 부안임씨 밀직공 임용우 열사의 서거 100주기를 맞아, 인고의 생애를 기리고 애국충절이라는 남겨주신 선열의 큰 뜻을 우리 후손이 따르고자 이곳 김포윌곶 독골 중중선영에 예갓취 함께 있습니다.

먼저, 근현대사의 시련 속에서 조국광복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시고 부안임씨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이신 선열께 경의를 표하며, 삼가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애국지사 임용우 열사께서는 35세라는 창창한 나이에 참으로 짧은 생을 오로지 나라를 걱정하시고 민족을 생각하시다가 희생하신 애국지사이십니다. 임용우열사의 이러한 위국헌신 삶을 우리 부안임씨 밀직공 후손들은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열사께서는 일찍이 신학문을 공부하시고 사립학교를 건립하여 운영하던중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시고 귀향하시어 윌곶

면 갈산리,조강리,군하리일원에서 항일시위 행진을 하시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의 형을 받아 복역중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잔혹한 고문으로 옥중 순국하시었습니다.

100년전, 일제의 침략과 강점으로 조국이 암울할 때 뼈를 깎는 아픔으로 기미년 3.1독립운동 현장에서 목청껏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시다가 비록 모진 고문에 육신은 온통 다 부서지셨지만 오늘날 남기신 충절의 큰 뜻은 우리 부안임씨 밀직공 김포 후손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여기 새로이 안장된 터에 후손만대에까지 별처럼 영원히 빛나도록 단장해냈습니다.

부안임씨 종원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는 독립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그 속에서 피어난 자유와 평화는 결코 거저 얻어진것이 아닙니다.

1945년 광복이라는 자랑스런 역사적 성취의 밑바탕에는 임용우 열사를 비롯한 여러 애국선열님들의 목숨과 바꾼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스런 조상이신 독립운동가 임용우열사께서 목숨바쳐 이루어 놓은 터전위에 서광을 더 찬란하게 키워 나가는 것은 후손인 우리들 모두의 마땅한 책무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파란만장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 임용우열사께서 추구하셨던 독립과 통일에 대한 굳은 의지는 새로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마련해야하는 지금에도 5000년의 장구한 역사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시련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낸 우리 조상님들처럼 값진 교훈으로 후손들이 영원히 뒤를 이어 계승해야 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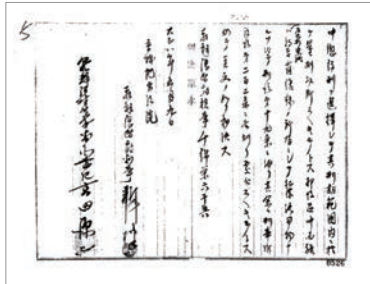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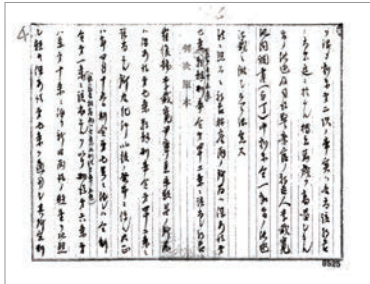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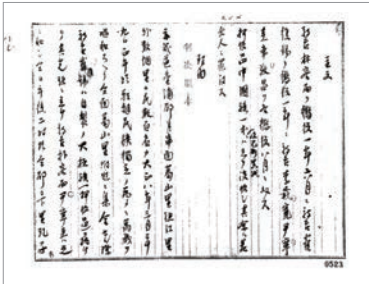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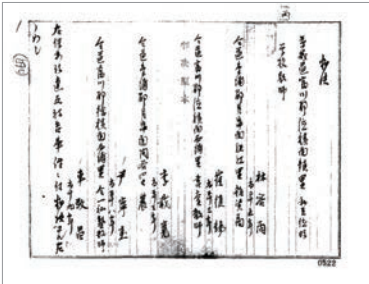
모쪼록,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주관하신 부안임씨 밀직공과 김포중중 임중호회 장님, 임도연 독립운동가 후손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종원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한번, 천상에 계신 독립운동가 임용우열사의 추도와 존경의 뜻을 기리며 여기 양지바른 따뜻한 독골언덕에 우리 부안임씨 후손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안식처를 새로이 마련해 술한잔 올리며 평안한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부디 영면하소서!

임 중 광 부안임씨 김포 청년회장, 30孫



3.1 만세운동사건 일제강점기 판결문 사본 (공훈 전자 사료관 소장)



화보로 보는 종회 활동 I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 종중회의 중중회관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 종중회의 중중회관



부안임씨 중앙종친회 이사회 마송 종중회관



부안임씨 중앙종친회 이사회 마송 종중회관



쇄암리 소중회를 방문하여 임원회의



부안임씨 밀직공파 청년회 가족 화합의 날



부안임씨 밀직공파 청년회 가족 화합의 날



부안임씨 밀직공파 청년회 김포 여성회 창립식



서하공 유택 사초 후 전면



서하공 유택 사초 후 후면



서하공 묘역 입구 신도비와 비석



서하공 묘역 오르는 계단 정비공사



서하 임춘 문학비 제막식



서하 임춘 문학비와 묘역

화보로 보는 종회 활동 Ⅱ



서하공 시제 인천 검단



유존각 월곶면 독골 사당



학사공 외 선조 선영 월곶면 독골



학사공 시제 김포시 개곡리 유존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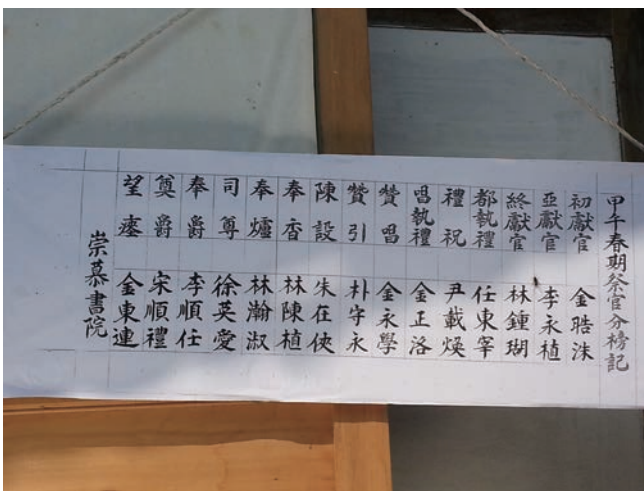
학사공 시제 김포시 개곡리 유존각



종손파 소종중 시제



부안관 시조 휘 계미 신도비 부안군 보안면



연천제 시향 제관 분방기 부안향교 주관



동을산리 소종중 시제



연천제 시향 부안 향교 주관



연천제 시향 부안군(시조 휘 계미, 서하공 휘 춘, 판사공 휘 택)



연천제 시향 부안군(시조 휘 계미, 서하공 휘 춘, 판사공 휘 택)



부안임씨 밀직공파 추모공원 개장



부안임씨 밀직공파 남골당



통정대부 돈녕부도정 해사공 임승익 유택 과 공덕비

화보로 보는 중회 활동 Ⅲ



하운공 임재호 유택 과 공덕비



순국열사 임용우 선생 추모공원으로 이장식



순국열사 임용우선생 공덕비 건립



중친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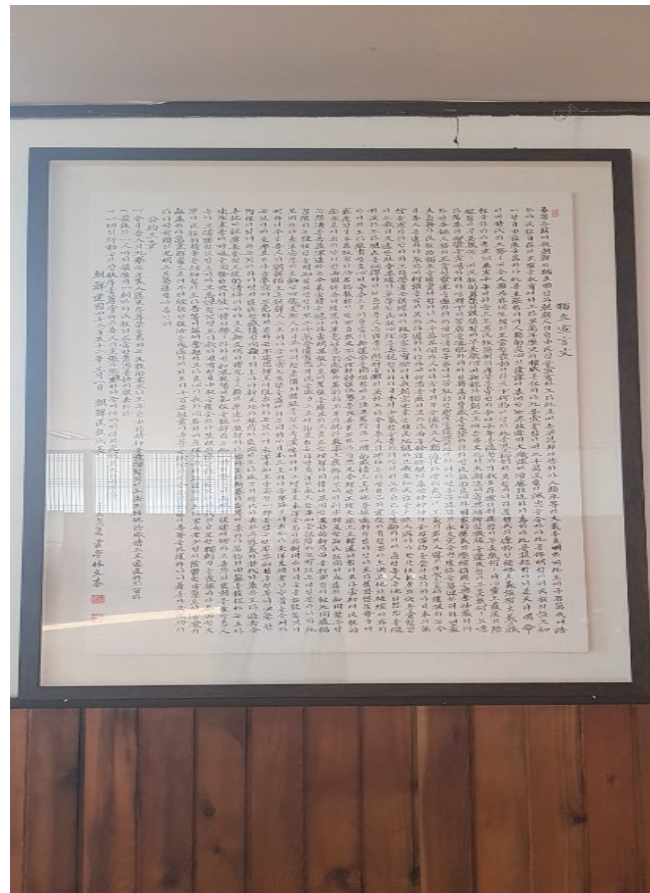
부안임씨 중앙중친회 임원회의 후 애기봉 관광



비간공 제향 참관



중 시조 임 휘 은 묘역



3.1운동 100주년기념 독립선언문 임문기 증



도시조 임 휘 팔급 도해비



진안군왕 임록공 묘역참배



부안임씨 중앙중친회 임원 만찬



부인시제 참석 후 김포중회 참관단 만찬



마조 임목 사당 참배

홈 페이지 서하 문학관 서문



서하 문집 6권의 구성은 총 268편의 작품으로
제 1, 2, 3권은 고을시古律時 214편
제 4권 서간문書簡文 18편
제 5권 서, 기, 전序, 記, 傳 14편
제 6권 계, 장, 제문 啓, 壯, 祭文 22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동문선東文選, 삼한시귀감三韓詩龜鑑, 복양 오세재 선생의 생애와 문학세계, 미수의 파한집破閑集, 이규보의 백운거사문집白雲居士文集 등에 편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하공이 돌아가신 후 죽림고회의 친구인 미수 이인로님께서 [역사적으로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 세상에 뛰어난 사람은 한 사람 뿐이다. 그가 죽은 지 20년, 배우는 사람들이 입으로 그의 시를 읊으면서 마음으로 흠모하지 않는 자가 없다. 장차 굴원과 송옥의 반열에 두려 하니 군자가 이른바 귀하고 장수한다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이제 뒷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편 遺篇 약간을 모아 집의 아들 비秘를 시켜서 교정하여 쓰게 하고 인쇄하여 전하려 한다. "애석하게도 하늘이 많은 날을 허락하지 않아 수집한 것이 많지는 않으나, 봉황 鳳凰의 터럭 하나를 보고도 죽히 그 아홉 종류의 날개 빛깔을 알 것이다."]

이렇게 미수 이인로님께서 서하 조부님이 돌아가신 후 20여 년간 서하공의 유필遺筆을 찾아 수집하고 엮어서 서하 문집 6권을 발간한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후손들은 서하 조부님이 얼마나 위대한 문인이신지, 위대한 선비 이신지를 학생들과 문인, 일반인들 보다 많이 알지 못했고, 또한 올바로 이해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후손들에게 알려주지 못 했습니다. 많은 후손들은 족보와 유택 입구의 신도비, 비석을 보며, 서하공이 무인으로 "참사사 상장군 순군부령 시호 절의공"으로 잘못 알고 지내왔습니다. 또한 일부 역사가들은 과거에 몇 차례 낙방한 것과 문학에 대한 비판과 왜곡이 있었습니다.

서하공이 훗날 추증 받으신 "증 봉익대부 참사사 상장군 순군부령 시호 절의공"은 서하 조부님의 시 [장검행]에 나오듯 한나라 태조인 유방을 도와 초나라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한 장량(자방)과 같이, 조부님의 인생 목표였던 임금의 스승이 되어 나라에 보국하겠다는 내용을, 후일 도학자들이 무인 장군들을 통솔하는 상장군 같다 하여 그렇게 추증하여 올린 것으로 실재는 무인이 아닙니다.

서하 조부님이 과거에 번번이 떨어졌다고 냉소적인 일부 비평가들의 평가는, 고려 건국 공신이신 벽상삼한태사 평원군이신 중시조 휘 계미 이후 조상 대대로 고위 관직에 제쳤고 부친의 삼형제 모두 조정의 고위 관료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귀족의 자손이었습니다. 과거를 보지 않고도 벼슬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당당한 꿈의 실현을 위해 과거의 첫 관문인 진사에 합격하고 본 시험을 준비 중일 때 정중부의 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중부의 난을 일으킨 무인들은 집권세력과 문인들을 무참히 죽였고, 우리 집안은 무인들에게 집중적인 탄압을 받아 온 집안이 몰살당했고 살던 집과 공음전마저 빼앗긴 채 서하공만 겨우 탈출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은 서하 조부님께서 다시 집안을 일으키고 살아갈 방법은 오직 과거를 통한 입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권력을 잡은 무인들은 의종을 폐위시키고 신종을 새로운 임금으로 세우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무단 정치를 계속하였습니다. 몇 차례 과거에 응시 하였으나 무인들에게 탄압 받는 집안으로 인식되어 있기에 합격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과거시험에 미련을 버릴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는 내용이 여러 편의 문장에 자조 섞인 글로 보입니다.

서하공을 시기해 문학적 비판을 한 최자는 최충현과 최항등 무인집권세력의 주문으로 강좌칠현의 문학을 비판했고 보현집을 저술하였으나, 미수의 파한집을 본 따서 만든 것으로 현재까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 최고의 문장가라 불리는 이규보는 서하 조부님이 국순전 발표하신지 15년 후에 비슷한 내용인 국 선생전을 발간하여 서하 조부님의 문장을 모방하였습니다.

서하문집은 고려 말 극심한 혼란기에 없어지고 잊혀 졌으나 그때 담인 스님이 청동 호에 넣어서 보관한 것을 350여년이 지나 운문사 인담 스님의 현몽으로 다시 찾아 세상에 나왔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후에는 500여 년간 무덤이 실전되어 잊혔으나 하운공과 해사공으로 인해 유택을 다시 찾아 제사를 올리게 되어, 비로소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하문집은 학생들의 참고서와 일반인의 교양서적으로 여러 편이 번역되어 발간되었고, 많은 석학들이 서하문학과 철학사상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전 문학사에 빛나는 <국순전> 과 <공방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전체 소설로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대학입시와 공무원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 문장입니다. "한국을 빛낸 100인의 위인"이라는 가요에는 "죽림칠현" 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죽림칠현의 인물은 임춘, 이인로, 오세재, 조통, 황보항, 함순, 이담지 7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2001년 4월 인천 원인제 에서 열린 "쌍명재(미수) 이인로선생 문학비" 건립(국문학과 대학교수 200명의 모임인 "문인 선비 비석 세워 드리기 단체")에 참여 하였고, 2001년 10월 경주에서 "복양 오세재선생 문학비" 건립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인로의 후손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 이형석교수에게 답례로 받은 <파한집>, <쌍명재집> 그리고 오세재 후손에게 받은 <복양 오세재 선생의 생애와 문학세계> 에서 서하문집에 없는 새로 발견한 서하공의 유필 5점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서하공의 시 중에 천 권의 책을 읽고, 삼천여 편의 시를 지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미 발견된 시와 문장이 많이 있으리라 사료되며, 우리 후손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야 할 사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서하문학관 개관은 전자 족보와 홈페이지 개통을 위한 제한 된 시간으로 많은 작품을 소개하지 못 하였으나 앞으로 계속 보완하여 추가로 소개하고 해석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임씨의 도시조 이신 충절공 휘 팔급의 방계 후손인 나주 임씨에는 백호 임제라는 문인이 있습니다. 조선 선조 때 평양 감사에 부임하러 가던 중 황진이 무덤에서 잔을 올리고 재배하며 읊은 시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웠는다....." 로 시작되는 시로 인해 부임도 못하고 파면된 일화가 있습니다.

나주 임씨에서는 그분의 문학비, 기념관, 문학관등을 개관하고 백호 임제 선생 시화전, 백호 문학상등을 운영하며 선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하공께서는 무신정변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전락 되어 꿈이 좌절되고 가문이 몰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연하게 그의 이상을 문학으로 승화시켜 우리나라 국 문학사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서하 조부님께서 모진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은 선비 정신과 위대한 문학적 공적은 후손과 후학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업적과 불굴의 선비 정신을 많은 분들의 소망으로 모아 서하문학비, 서하문학공원, 서하문학관 건립 등으로 발전시키며 선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종인들께서 뜻을 모아 꼭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24세 임 중 상

부안임씨 밀직공파 홈페이지 편집 후기

부안 임씨 밀직공파 홈 페이지를 완성하면서 종인들께 인사드립니다.

금번 전자 족보 편찬 사업과 함께 전자 족보를 올려놓을 수 있는 홈 페이지를 담당하여 기획과 작성을 맡은 임종상 부위원장입니다. 종중에서 처음으로 하는 대 작업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해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홈 페이지의 구성은

1) **중회 소개** : 부안 임씨 종중회의의 소개와 기구표, 중훈, 회칙, 향사 일정, 추모공원과 납골묘, 홈페이지 관리규약, 종중 회관 등 중회와 활동 사항 등을 소개하여 종인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2) **전자 족보** : 전자족보는 임종학 추진위원장이 구 족보의 오자와 탈자를 수정하고 임종광 부위원장이 기획과 수집 자료를 집계 정리하였으며, 임도연총무, 임성희 종손과 본회 이사들이 종인과 연락하여 족보 수정 사항을 수집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정한 구 족보와 종인들이 추가 접수한 변경신청을 임종광 부위원장이 집계 정리하여 주관사에 보냅니다. 주관사인 뿌리정보사에서는 수집된 구 족보를 한글로 번역하여 찾기 쉬운 국. 한문 혼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의 일정으로 종인들의 출생, 결혼, 사망 등의 변동 사항을 임종광 부위원장에게 접수하여, 전자족보가 완성 될 수 있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족보 찾기, 전자족보 열람방법, 족보 변동 사항접수 항목으로 구분하여 찾기 쉽고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뿌리 정보사에서 2019년 12월말 일 까지 완성 예정입니다)

3) **뿌리 탐구**에서는 우리 임씨의 상고사를 정리하여 특성 이전의 뿌리부터 조명하였습니다. 사마천의 역사서 사기에서 삼황오제, 하, 은, 주 본기, 중국의 역사와 신화, 공자의 상서,시경, 논어, 중국의 역사 등의 자료와 임씨 상계보감, 한국인의 성씨, 은허 유적지 기록물과 비간 문화연구지, 서하 문집 등을 참고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대 주요 인물을 간략히 소개했으며 우리나라 임씨의 원류와 관향 분포를 알기 쉽게 정리 하였습니다.

4) **부안임씨 밀직공파** 부안임씨는 (김포 밀직공파, 낙안 고흥 밀직공파), (판사공파),(전서공파)의 세파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부안관의 내력 계보와 주요 인물소개, 사적, 김포 밀직공파의 주요 인물에 대한 사적 등을 소개 하였습니다. 판사공파와 전서공파, 낙안 고흥의 밀직공파는 대표적 사적을 소개 하였습니다.

5) **자랑스러운 선조** : 서하공은 소개할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우선 중요 부분만을 기록하고 차후 보완하며 추가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서하 문학관과 서하 문학비 건립을 나누어 소개했으며, 그간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아 그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학사공 휘 계정 조부님에 대하여는 임문기 종친이 번역하신 학사공 약초. 휘 승한, 휘 승익 조부님의 서하공 제문, 고유제문 등을 소개했고, 하운공의 공덕비, 해사공의 공덕비와 해사공의 장원급제한 시제와 답안지를 이번에 처음으로 번역하여 소개했습니다.(참고 자료 : 조선왕조실록, 비변사 일지)

임용우 순국열사 공덕비, 임철모 3.1운동 순국열사를 소개했습니다.



▲ 부안임씨밀직공파중회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6) **중회 자료실**은 청년회 활동사항, 김포 종보, 중앙종친회보를 올리고 서하공 시제와 학사공 시제 동영상 올렸습니다. 그리고 태시조 비간공 시제 참관 및 유적 답사기를 PPT 형식으로 올렸으며 서하공 과 학사공의 시제 흘기, 산신 축문, 축문을 올렸습니다.

유물, 유적과 사적, 납골당과 추모공원을 사진으로 올려 종인들 의 관심 사항을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7) **전통 자료실**에서는 참고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8) **열린 마당**에서는 공지사항과 중회 소식, 일가 동정, 업데이트 소식, 사진 갤러리, 자유 게시판을 만들어 공지사항과 홍보, 소식, 그리고 종인 분들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자료의 수집과 현장 조사, 원로들과의 논의 등을 통하여 사실에 충실하고 과장과 왜곡을 바로잡기 위하여 수많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선 홈페이지를 개통해야 하기에, 부족함과 올리지 못한 자료가 많으나 추후에 보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종인 여러분들의 고견과 의견을 주시면 확인 후 교정과 참고하겠습니다.

2019. 11. 18.

전자족보편찬 부위원장(홈페이지 담당)
부안임씨 30세 임종상 배상

연락처 010-5343-3441 E-mail ki-lim00@hanmail.net

팩 스 0505-343-3441 홈페이지 부안임씨밀직공파.com